

○ 서울의 어려운 주차실정을 감안할 때 관공서 등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공서 등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야간시간대 개방시 도난, 경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기존건축물이 주차장 확보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의 건물로서 주차시설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 앞으로 구청 등 시산하기관의 개방을 추진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일반건축물의 개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質疑要旨)
지역구 현안문제
○ 당산역·합정역·홍대입구 운행 셔틀버스에 냉방시설계획
(答 辯)
○ 당산역과 홍대입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1~4분 간격에 편도 소요시간은 13분 정도로서 승하차시 앞·뒷문을 개방하게 되고 중간의 합정역 정차를 감안하면 냉방화의 실효성은 낮은 편입니다.

○ 또한 일반버스에 비해 냉방버스의 수송능력이 떨어짐(일반버스 85명, 냉방버스 76명)을 감안하면 러쉬아워 시간대에는 수요인원의 원만한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냉방버스 가격이 고가(대당 4,300만원)로서 버스업계에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들어 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 다만, 승객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운행중인 30대중 금년중에는 최소 10대 정도의 냉방화를 목표로 업체와 협의중입니다.

(質疑要旨)
한강교량·개발사업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 지명위원회 구성과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答 辯)
□ 우리 시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85.7.10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내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 민간위원 8명은 지리학교수, 민속학자, 향토사학자, 작가 등 우리 고유 지명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그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 원 장	행 정 1 부 시 장		
부 위 원 장	내 무 국 장		
위 원	강 신 재	작가	
"	김 영 상	향토사학자	
"	김 인	서울대교수(지리학)	
"	손 보 기	단국대 민속학연구소장	
"	손 정 목	서울시립대학교	
"	원 학 희	경희대교수(지리학)	
"	이 규 태	조선일보 논설위원	
"	임 동 권	중앙대교수(민속학)	

(다음 페이지에 계속)